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95호 2026년 4월 5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오늘의 미사

주님 부활 대축일

<p>▶ 1독서 : 사도행전 10,34-37,43-43</p> <p>▶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p> <p>▶ 2독서 : 콜로새서 3,1-4</p>	<p>▶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p> <p>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p> <p>▶ 복음 : 요한 20,1-9</p>
---	---

성가 ▶ 입당: 136 ▶ 봉헌: 213, 219 ▶ 성체: 168 ▶ 파견: 134

- ① 4월 19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4월 19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4월 봉성체 안내
4월 봉성체는 4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4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4월 19일~25일)
- ⑤ 매월 넷째 주 4월 25일(토), 26일(일) '한끼 나눔'
- ⑥ 성지순례 안내: 4월 26일-5월 1일 (평일 미사 없음)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교육분과 위원, 교리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4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② 다락방 모임

일시: 4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③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4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④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4월 12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⑤ 쉘렉 구역 모임

일시: 4월 14일(화) 오후 3:30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⑥ 키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4월 18일(토) 오후 5:30
문의: 김아가다 907-570-2034

■ 故 김종득 요셉 형제님 장례미사 안내

김종득 요셉 형제님이 향년 8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연도: 4월 7일(화) 9:30 장례미사: 10:30

고인의 영혼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부활절 성당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김국희 다니엘라, 변정순 말가리아, 송정선 데레사, 손 로살린

※ 2027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가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후 커피를 판매 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축하드립니다(세례자 명단)

신지유 레지나, 이해심 안나, 김경실 실비아, 류한정 류카스
김애경 스텔라, 한제임스 야고보

기타공지



헌금

5월 16/17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3월 28일 / 3월 29일: \$6,795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21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596	\$2,115	-	\$1,084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 말씀 전례(7) 말씀 전례 중 복음 (1)

복음 낭독 전 주례 사제와 교우들은 다음과 같이 계응을 주고 받습니다.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부제)의 영과 함께.

(부제 또는 사제가 말한다.)

✦ ()가(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책과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한다. 다른 모든 이도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한다. 교우들은 환호한다.)

◎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말씀 전례는 복음환호송 다음에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이란 단어에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우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담은 4복음서(마르코, 마태오, 루카, 요한) 중에서 낭독됩니다. 복음은 부제와 사제만이 봉독할 수 있습니다. 복음 봉독 시 미사 전례에 참석하는 이들은 사제 또는 부제가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라고 말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이때, 신자들은 이마와 입술 그리고 가슴에 작은 십자성호를 긁습니다. 이는 듣는 복음을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복음 말씀을 전하며, 마음으로 간직하고 몸과 마음으로 믿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믿는 이들의 고백이고,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식서에서는 사제가 복음 낭독 바로 전에 다음의 기도를 바치도록 제시합니다.

(사제는 제대에 허리를 굽히고 속으로 기도한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사제가 속으로 외우는 기도이기에, 신자분들께서는 생소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낭독하는 사제가 다음과 같은 기도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점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복음 전 사제의 기도를 응용한다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소서.”의 내용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례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기 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복음이 낭독되는 시간은 따분한 시간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친히 오시는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알아둡시다

※ 부활 대축일 낮 미사 강론

부활 대축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재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느님의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특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체험을 강조하며, 부활이 환상이 아닌 실제 사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체험은 두려움에 숨어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 세상 앞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아직 깨달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완전한 이해 이후가 아니라, 이해에 앞서 시작되며 점차 깊어지는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선언하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옛 삶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과거의 죄와 상처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묵은 누룩을 치우라”는 말씀처럼, 삶 속의 작은 죄와 습관까지도 정리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도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실패, 상실, 두려움이라는 삶의 ‘무덤’을 경험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또한 부활은 개인적인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세상 속 증인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말뿐 아니라 삶으로 기쁨과 희망,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부활 대축일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것을 선택하는 날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도록 초대하는 날입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p>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p> <p>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p>	<p style="text-align: center;">최 니콜 부동산</p> <p>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p>	<p style="text-align: center;">메디케어 보험</p> <p>(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p>
<p style="text-align: center;">광고 문의</p> <p>사무실 808-422-1010</p>	<p style="text-align: center;">A'ALA Meat & Seafood Inc</p> <p>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p>	<p style="text-align: center;">보나 최 부동산</p> <p>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p> 